

축제의 밤 음악으로 세계를 만나다

세계 각국 음악가들의 선율이 가득한 음악 축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글로벌 음악축제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제10회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오는 8월 15~17일 3일간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총 9개국 14개 팀이 참가해 클래식, 재즈, 펑키 팝, 플라멩코, 파두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또 'ACC 국제교류프로그램 레지던시'를 통한 예술가들의 음악 창작·협업 프로젝트를 포함해 라인업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극장 1 야외무대 '빅도어 스테이지'는 이탈리아 음악을 기반으로 세계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보엠' (15, 17일)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란 가수 알리레자 고르바니 (15일)의 페르시아 전통음악공연, 이라크 출신이자 사르자 월드뮤직 페스티벌 감독인 푸앗 콰도리(16일)의 공연이 이어진다. 스페인 밴드 '엘 아미르와 플라멩코 메디테라네오 앙상블' (16일)이 플라멩코 음악을 선보이고, 인도 출신 드바시시 바타차리(17일)의 '슬라이드 기타' 공연, 헝가리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로비 라카토쉬(17일)의 월드뮤직·재즈·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아시아문화광장에 위치한 'ACC 스테이지'에서도 공연이 펼쳐진다. 모로코 싱어송라이터이자 영화배우 힌디 자히라(15일), 아프로 비트, 펑키 팝 등을 연주하는 핀란드-베넨 '헬싱키 코토누 앙상블' (15, 16일), 스페인 '파두' 음악을 공연하는 사라 코레이아(16, 17일) 등이 출연한다.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8월15~17일, 9개국 14개 팀 참가
클래식·펑키 팝 등 다양한 장르 공연

국내 초청 아티스트도 눈길을 끈다. '빅도어 스테이지'에선 전통음악을 재해석하며 세계 음악과 콜라보레이션을 펼치는 가야금-해금 앙상블 밴드 '돌다' (16일), 베이스, 퍼커션, 양금을 사용해 국악과 인디음악의 융합을 시도하는 밴드 '동양고주파' (17일)가 무대에 오른다. 'ACC 스테이지'는 펑크, 재즈, 힙합, 록, 일렉트로닉 등 각종 음악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밴드 '치카티카 브라사 사운드' (15일)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ACC 곳곳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방문자센터 옆 출입구 1번 계단에 위치한 소규모 공연장 '반디 스테이지'에서는 '무드리스트', '광주악국', '젠티플' 등 'ACC 반디밴드 공모'에서 선정된 8개 팀의 공연이 진행된다. 예술극장 로비에서는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도 먹거리·기념품을 살 수 있는 푸드&굿즈 마켓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무료 관람. 문의 1899-556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19 ACC WORLD MUSIC FESTIVAL

오는 8월 15~17일 열리는 '2019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사진은 힌디 자히라(왼쪽), 드바시시 바타차리(오른쪽 위), 헬싱키 코토누 앙상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19' 연계 24일 '청년작가로 살아가기' 행사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19' 전시연계 행사를 오는 24일 오후 2시 하정웅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청년작가로 살아가기'작가, 비평가, 기획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19' 전시 설명과 더불어 동시대 청년작가 발굴 육성 현황과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행사는 이번 전시에 초대된 이원경, 이정기, 임봉호, 신준민 작가와 박진희(부산시립미술관), 유명진(대전시립미술관), 홍예슬(대전시립미술관), 홍윤리(광주시립미술관) 등 지역 공립미술관 학예연구자들이 참여해 발제하고 토론한다.

이날 대화의 장에서는 작가, 비평가, 기획자들이 청년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경험담과 더불어 동시대 각 지역별 미술관련 기관들이 운영중인 청년작가를 위한 정책과 현황, 그리고 발전적 대안 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게 된다.

'빛2019'전은 오는 8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서 계속된다. 문의 062-613-71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내 작품이 전시

광주디자인센터, 도자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동조형물 제작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전시

'내 작품이 디자인비엔날레 전시된다면...'

오는 9월 개막하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는 (재)광주디자인센터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작품은 공동조형물로 제작돼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 5관에서 행사 기간 동안 전시된다. 또 공식 도록에도 실릴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운영된다. 오는 8월11일까지 매일 디자인센터 디키빌 체험관에서 열리는 '도자벽화 체험' (유치원-중학생)은 점토와 안료를 이용해 도판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심재전 도예가가 진행한다. 오는 8월 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열리는 '한지 조형물 체험' (초

등학생)은 최춘근 조형예술가와 함께 한지 종이죽을 사용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매회 사전신청제로 진행하며, 도자벽화 체험 수업은 60명, 한지 조형물 체험 수업은 최대 3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한편 (재)디자인센터는 본전시 개막에 앞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 프랑스 대표작가 다니엘 뷔렌과 12인의 작가를 초청한 'DIVE INTO L.I.G.H.T.전'을 디자인센터에서 열고 있으며 역대 7회의 행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특별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카이브전'도 준비 중이다. 문의-062-611-511. /김미은 기자 mekim@

그윽한 목향

레지던시 입주작가 김종희 초대전
순천 모건미술관, 31일까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석하(石河) 김종희 작가에게 딱 맞는 말이다. 나이 40을 넘어 뒤늦게 서예와 문인화에 입문,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종희 작가는 75세인 현재 호남대 미술학과에 적을 두고 수십년간 작업해온 문인화와 서예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며 다양한 기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순천 모건미술관이 공간연계형 창작활동지원사업 레지던시 입주작가 석하(石河) 김종희 작가 초대전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

'필묵(筆墨) 심학(心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30여점을 선보인다. 그윽한 목향을 느낄 수 있는 서예 작품을 비롯해 삶의 연륜과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는 문인화 등이 눈에 띈다.

또 이번 모건미술관 레지던시에 머물며 작업한 '上善藥水(상선약수)', '根深之木(근심지목) 凝澁之水(원원지수)' 등 전각 작품과 '無(무)불립(무신불립)' 등 기와에 새긴 와각



'山高水長(산고수장)'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김 작가는 소치미술대전 대상(2009), 남농미술대전 특별상(2011) 등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서예대전·광주시미술대전·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781-46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WAF 애니메이션·웹툰 공모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탁용석)이 'WAF2019 애니메이션·웹툰 공모전' 참가자를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콘텐츠의 발굴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애니메이션과 웹툰 2개 분야에서 청소년(중·고등부), 대학생, 일반인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출품작의 주제 제한은 없으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3분 이내의 영상 파일, 웹툰의 경우 대학생, 일반인 부문은 60~80컷 이내 1회 분량, 청소년 부문은 20컷 내외 1회 분량의 이미지 파일로 제출서류와 함께 홈페이지(www.iwaf.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 규모는 5200만원이며 9월 시상식과 상영회가 열린다. 문의 062-610-2475. /김미은 기자 mekim@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양시장 앞 061) 752-9940